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Aug. 30, 2026

(통권 1121호)



오늘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서론 ~ 하나님을 갈망하던 마음이 마침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섯 번째 복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깨끗해야 합니까? 생각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까? 욕심도, 미움도, 질투도, 교만도 전혀 없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강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마음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기 “청결한”은 헬라어 [καθαρός(katharos)]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깨끗한, 순수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깨끗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과 의지와 욕망과 사랑, 곧 한 사람의 내면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종교성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시 24:3~4]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깨끗한 손(Clean Hands),

청결한 마음(Pure Heart)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행동만 바르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흘러나오는 마음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따라가 보면 청결한 마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 86:11]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Unite my
heart to fear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나뉘어진 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으면서 내 뜻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δίψυχος(dipsychos)]라고 불렀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double-minded person)”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약 4:8).” 손과 마음이 또 함께 등장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단순히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의
마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할수록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 한 분께
모아집니다. 그래서 Pure Heart는 곧 Undivided Heart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해 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만납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던 다윗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던가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정말

마음이 깨끗한가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 동기까지 깨끗한가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까지 깨끗합니까? 거기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욕망과 질투와 교만과 미움이 전혀 없나요? 이 질문 앞에서 누가 자신 있게 “예”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새벽에 배우고 있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롬 2: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롬 2:16).”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복음이 필요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은 종교생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구속주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우리가 우리 자신을 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시편 24편의 질문으로 돌아가봅시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완전한 깨끗한 손과 완전한 청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여덟 계단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만들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청결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네가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그 대가로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로 모아질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희미합니다. 돈이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너무 선명하면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씻어가고, 흠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갈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 사이에는 아름다운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던 마음이 마침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그
얼굴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인간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창 3:8).”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보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윗도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시 27:8).”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습니다.

고라 자손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시 42:2).” 성경 곳곳에서 인간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갈망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 33:20]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 14:8).” 얼마나 인간다운 갈망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 여기서 성경의 오랜 갈망이 놀라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모세가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 다윗이 얼굴을 찾았던 하나님. 고라 자손이 갈망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후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이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계 22:3~4]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 1) 창세기 3장 ~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 2) 구약 ~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 3) 복음서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 4) 요한계시록 22장 ~ 구속 받은 모든 성도가 마침내 그의 얼굴을
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2장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들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얼굴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볼 자격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흠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며, 마침내 아버지의 얼굴 앞에 서게 하신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사람들의 평가,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상처와 미움도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쉽게 흠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수록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
너무 크게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작아지고, 이전에는 희미했던

예수님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성공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선명해집니다. 평생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찬송시인 Fanny Jane Crosby의 찬송 가운데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면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는 말씀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도 아닙니다. 내 영혼에 누가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느냐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갈수록 세상의 수많은 것들 사이에서 예수님 한 분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모두 끝나는 날,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분을 더 이상 희미하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김 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The Heart of Jesus,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 A. 주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제 마음을 은혜로 씻으시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B. 주님, 세상의 수많은 것보다 예수님이 제 영혼에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소서.
- C. 주님, 지금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만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뵈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의 한 줄 메모 ~ “청결한 마음은 죄 없이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은혜로 씻김 받아 하나님 한 분을 향해 하나가 되어가는 마음입니다.”